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2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6월 13일 (음력 5월 11일) 목요일

광주·전남 학교 '편안 교복' 인기몰이

“학생활동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은 덜고 1석2조”

광주 93개 중·고, 전남 160여 개교 생활교복 도입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서 '편안 교복'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창 성장할 나이인 학생들의 활동성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은 덜 수 있어 1석2조라는 평가다.

12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는 93개 중·고등학교, 전남은 16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편안한 생활교복을 도입했다.

광주는 전체 중·고등학교의 65% 전남은 41% 수준이다.

대부분 자체 교복선정위원회를 거쳐 도입 여부와 모델 등이 결정되고 있으며, 여름철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 겨울철 후드티 등이 주류다.

구입비는 1인당 30만원 안팎이다. 학교현장에서는 “누구나 입고 싶

은 편한 교복'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인권친화적 교복 구입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 교복의 획일적인 디자인과 재질에서 벗어나 편의성·기능성·경제성을 고려한 활동성 높은 교복 착용을 적극 유도한 결과, 신청 학교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기존 여학생 교복은 신축성이 적은 데다 일반 기성복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 ‘현대판 코르셋’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성을 높이고 신축성·통기성·보온성이 담보된 편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들이 늘면서 학부모와 학생



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 김성애 학생생활지원과장은 “다가오는 여름, 흰색셔츠나 블라우스, 재킷 등 일률적인 형태에

서 벗어나 편리성과 기능성을 더한 생활 교복 채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45억원을 따로 편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정현·조인호 기자

“체납 꼼짝 마” 광주시민 참여 체납정리반 37억5000만원 징수

3개월 간성과 탁월...전년 대비 33억여원 증가

광주시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반이 뛰어난 운영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가동한 결과 총 37억5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정리반은 2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16만명(298억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전화납부 안내를 실시했으며 체납자 2만4989명의 체납액 24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3299대를 영치해 13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광주시는 5월31일 기준 총 199억3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165억8000만원 대비 33억5000만원이 증가했

다.

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체납정리반에는 시민 50명과 세무공무원이 참여해 전화납부 안내와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5명, 서구 10명, 남구 7명, 북구 14명, 광산구 14명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2개월 간 하반기 시민과 함께 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은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등록,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북한 참가 7월3일 경기엔트리 마감까지 가능”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30일 앞둔 12일 광주 시청 문화광장에서 손님 맞이 범시민 10대 실천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D-30일을 맞아 대회 준비상황을 설명한 뒤 “북한 선수단 참가는 7월3일 경기엔트리 마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1차 엔트리 마감일인 이날까지 대회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7월3일 경기엔트리 마감까지 신청하면 참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는 정부와 국제수영연맹 등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선수단 등의 참가를 제안해 왔다”며 “이번 수영대회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열리는 만큼 북한이 참가해 체육이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체육을 통

거비와 방송권료를 지원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시장은 “수영대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역대 어느 대회보다 가장 많은 국가와 선수들이 참여해 풍성한 기록과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

광주수영선수권대회 D-30 준비상황 설명 “역대 최대 규모...국민적 관심 성공 조건”

해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역대 FINA 대회에 계속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이번 대회에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43% 배정돼 있어 참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또 FINA 측이 북한 선수단의 참

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 대회 성공의 또 하나의 필요한 조건은 국민적 관심이다”며 “이번 수영대회를 계기로 온 국민과 남북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의 위상, 한반도의 평화, 광주의 세계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대풍 기원’ 광주자연과학고 손모심기 행사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교장 박영숙)가 11일 오후 한 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풍년농사기원과 손모심기 행사를 분교 서편에 마련된 실습부

진행했고 이어 식물과 재학생들이 전통방식으로 손모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자연과학고 박영숙 교장은 “오늘 지에서 박영숙 교장과 교직원, 식물과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올 한 해 풍년 가득한 농사가 돼 농민의 근심을 말끔히 가실 수 있도록 기원한 축사 등 다채로운 풍년 농사기원을

행복도시 **광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어르신이 건강한

▶ 湖南新聞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광양시
광양시의회
광양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갑섭
전남관광진흥재단지원센터
교육장 조정자

여수광양항공공사
사장 차민식
광양시의회사무소
회장 이백구
광양시사회통합
조합장 송백섭
광양시일예교육원
조합장 장진호